

의안번호	제 919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연월일	2021년 12월 8일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919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주문

- 위드코로나 시대의 학교방역과 학습결손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및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함.

## 2. 제안이유

- 지난 9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기본법이 개정되고, 7월 28일 교육부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및 심리·정서 생활 지도 등의 결손을 종합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과 교육부 정책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학교방역과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격차 등 현재 우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 하려는 것임.

## 3. 붙임 : 건의안

- 4. 이송처: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국민의 당 대표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단위학교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의 결손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과 교육부 정책은 코로나19 학교방역과 예방, 학습 결손 및 기초학력 저하, 교육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범국민 서명과 입법청원 운동을 이끌며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대선공약으로 촉구하고 있다. <sup>32)</sup>

---

3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명 11월 17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 대선공약 채택 기자회견(교육희망 보도자료, 2021.11.17.)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교육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이 담보된 안전한 대면수업 보장을 통하여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격차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시행 교육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학급증설, 학군조정, 신규 교원확보 및 교원수급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년 12월 일

충청북도의회